

“교사의 자리는 진보의 제일선에 있다.” 평생을 자립적이고 자족적인 삶으로 일관했던 스승 니어링의 자서전에 나오는 말이다. 그의 스승이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라 한다. 그는 이 말 다음에 “나는 어떤 사회체제에서든 교사의 역할이 이 한 마디로 요약된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 글을 쓰는 나 또한 그의 견해에 동의한다.

교육부총리가 9월부터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힌 ‘교원평가제’가 호지부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의 반발 때문이다. 진보적 교원단체임을 자처하는 진교조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식 있는 교사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쓰일까 봐 혹은 ‘일부 악의적인 민원에 따라 무고(誣告)한 피해를 보는 교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근색하기 짝이 없다. 우리 사회의 분별력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설사 일부 말자각한 교육 행정가나 학부모가 있더라도 그것이 ‘교원평가제’를 거부할 명분일 수는 없다.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까 한다. 서울 강북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모 중학교의 3학년 생인 딸이 2학년 때 있었던 일이다. 학기 초 집으로 돌아온 아이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전자계산기를 들고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설마 싫어 다그치듯 재차 확인했지만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더욱 충격



불자 세상보기

윤 세 학
동화작가

교원평가제와 ‘꿈꿀 권리’

적인 얘기를 털어놓았다.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적당히 얼버무리며 ‘학원에서 다 배웠지’하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거의 공(空) 교육이 되다시피 한 우리나라 공교육(公教育)의 현실이다. 교원 단체에서는 지금도 개인적이고 부분적인 사실을 일반화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는 공감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학교와 학원의 주종관계가 역전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른바 명문 학원과 집값 상승의 상관관계는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교원의 전문성을 지금의 몇 배 수준으로 강화하지 않고는 공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중·고교 영어 교사의 토의 시험 성적이 대기업 입사 지원자의 평균을 밑돌고 심지어 14%가 중학생, 8%가 초등학생 평균점수 이하인데 어떤 부모가 빛을 얻어서라도 학원에 보내지 않을 것인가. 부모의 행태가 빛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 가난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차이는 현실 앞에서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는 교사는 과연 어떤 종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인가. 초·중·고교생 자녀를 가진 교사들이라

땀이 한번 뱉혀 보라.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갈수록 이 나라에는 자식을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평준화’의 이상을 실현하고,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는 뜨거운 열정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진보의 지향점 아니겠는가. 교원의 자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지표인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로 교원의 전문성 부족이 주요원인이다. 그럼에도 평준화의 기초를 포기할 수 없는 건 민주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만약 사교육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아이가 무능한 교사로 인하여 기회의 평등조차도 박탈당한다면 그것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일이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배워야 한다는 건 상식이 다. 부처님께서는 ‘이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고 했다. 속지 못하면서 이는 최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을 수치는 일이며, 남을 기만하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을 오도하는 일이므로 그 죄가 크다’고 했다.(법망경)

교원평가제가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100% 보장하리라곤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현실적 대안은 될 것이다.

불자의 눈 는설위행 기명사설

폐사에서 음악회가 열린다. 텅 빈 공간에 아름다운 화음으로 가득 찬다. 생각만 해도 근사하다. 사실 폐사는 텅 빈 오페라극장이다. 폐사는 무관심 속에서 다만 절망할 따름이었다. 한때는 불자들의 각광을 받았을 절터가 시절연이 다하여 상(相)을 지워내게 되자 땅의 대상으로 떨어진 곳이다.

이제 폐사가 운기를 내기 시작했다. 폐사의 조용한 웅변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추진중인 1 폐사지 1 지킴이 운동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중국의 폐사는 대략 2천 내지 3천 군데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누구도 문헌 검색과 더불어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사지 분포도 같은 지도를 구해 볼 방도가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폐사지 현황조사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니 문화재 보호 관련 정책은 모래 위의 집과 같다.

음악으로 살리는 옛 절터

1960년대 이후 발굴된 폐사지는 1백여 군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폐사지의 문화재가 무관심 속에서 망실되거나 상채를 입고 있는 중이다. 폐사의 당간지주나 석탑 혹은 주춧돌 등이 훼손되고, 심지어 절터에 민가나 밭이 들어서 있는 경우도 있다. 유린당하고 있는 폐사지, 우리들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이에 국회에서 추진 중인 폐사지 보존법안에 거는 기대 또한 적지 않다. 폐사지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나 지자체 혹은 관련 단체 등은 폐사지 보호에 적극적으로 정성을 모아야 할 것이다. 폐사는 방치된 땅이 아니다. 그곳은 수행의 종교적 공간이었고 문화의 공간이었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다.

양주 회암사에서 음악을 개회한다. 정적(靜寂)의 공간인 폐사지에 조명을 비추어 ‘등반 출반’을 연출한다. 폐사에서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동안의 무관심을 반성하고, 외로웠던 절터에 생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폐사지 지킴이 운동에 커다란 박수를 보낸다. 절터에 필립핀 석탑들, 이제부터 폐사는 외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들었다 공멸 대신 ‘공존’

“이의 되거나 좋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손해되는 것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면 다투고 분쟁이 없어진다.” <열반경>

북핵 6자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원칙과 해법 마련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향후 구체적인 이행조치로 가기 위한 발판까지도 구축했다는 의미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 이 큰(?) 결단을 내린 셈이다. 북한은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과 다른 나라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으며 환영 분위기가.

6개항의 공동성명을 잠시 들여다보면, 눈여겨 볼만한 것이 있다. 6개국의 관계를 규정할 대목이다.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준수하고 국제관계 규범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특히 북한과 미국이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상호 평화적 공존을 약속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로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의미 때문이다.

물론 6개국이 계산한 이해득실의 셈법은 다르다. 이른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란 원칙이다. 달리 말하면 ‘줄 것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계산법이다. ‘함께 다 죽기’ 보다는 ‘다 같이 살자’는 측면에서 일단, 공존(共存)의 지혜가 일러진다.

<삼대승론>에서는 “인내는 자타(自他)의 평화를 낳는다”고 했다. 자신이 노여움에 더럽혀지지 않으면 자기를 평화롭게 하고, 분함과 원망을 갖지 않는다면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어렵게 한반도 비핵화의 깃발은 올라갔다. 이해관계가 달라도, 상생을 위한 한반도 평화유지의 제도적 기틀을 다진 것이다. 기초가 아부지게 마련된 만큼, 6개국 모두가 다름과 분쟁을 견어내고 서로가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김철우(우재부 기자)

특별기고 불교에서 말하는 타력과 자력 신앙의 유래

최근 현대불교신문에서 불교의 ‘자력’과 ‘타력’적 측면을 기사화 한 것을 읽었다. (542호, 9월 7일자 18면) 불교 수행에 있어서 자력신앙과 타력 신앙을 따지는 것 자체가 불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별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불교 수행에서 타력으로 오해하기 쉬운 분야가 정토신앙인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 유래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정토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담란대사(476-542)가 ‘부처님의 근본소원

그러기에 본원이란 보신불인 아미타를 깨서 성취하신 부처님의 원력이 자기 자신이 수행이나 선행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라는 의미에서 담란대사가 “본원은 타력”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자력이 별도로 따로 있어서 말한 것이 아니다.

7세기라고 하면 중국이나 한반도의 정토교가 대성황을 이룬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양국의 정토교의 발전양상은 다르다. 중국의 정토교는 담란대사로부터 <관무량수경>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도작성사를 거쳐 선대대사에 와서 완성되었다

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정토교는 자장율사의 <아미타경소>와 <아미타경의기>를 위시하여 원적대사의 <무량수경소>와 <아미타소> 그리고 원효대사의 저서로 <무량수경중요> <무량수경소> <아미타경소> 등의

에 많은 정토교서가 있는데 대부분이 무량수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반도의 정토교는 무량수경 중심으로 발전되어 원효 대사에 의하여 확립된 것이다.

원효대사는 중국정토교의 영향을 받은 흔적도 없고 또한 본원에 대한 표현도 “본원은 자력이 아니다”라고만 표현했던 것이다. 일본의 정토교는 중국정토교를 모방하고 한반도 정토교의 영향을 받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정토교의 개산자 호넨상인은 중국정토교의 <관무량수경>을 위주로 삼았으며 그 제자 신란상인은 한반도 정토교의 <무량수경>을 중심으로 한 정토진종이다.

중국정토교에서 발생한 “본원은 타력이다”라는 표현이 일본 정토진종에서는 메이지 시대에는 “절대타력”이라는 표현으로 쓰였고 소화시대에 와서는 ‘타력경’과 ‘자력경’으로 부처님경전을 분별하는 기묘한 현상이 나오기도 했다.

자력과 타력을 논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 ‘근본발생’인 부처님 본원에 국한시키고 더 이상 비약시켜서는 안 된다. 모든 경전에는 반드시 부처님의 원력인 본원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정진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효란(오봉사 주지)

담란의 “본원은 타력이다”서 비롯

인 본원은 타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후에 도작성사(562-642)와 선대대사(613-687)가 계승했다. 이를 일본에서 정토종을 개산한 호넨상인(法然上人 1133-1212)이 모방하여 “본원은 타력이다”라고 표현하고 그 제자인 신란상인(親鸞聖人 1173-1262)도 사용했기에 일본 정토교에서는 “본원은 타력이다”라는 것이 통례가 되어 있다.

본원이란 법신불께서 중생제도를 위하여 법장보살이 되고 세사재왕불 앞에서 발원하여 210억이라는 정토에서 48가지의 본원을 선택한데서 비롯됐다. 법장보살이 ‘48선택보원’을 이루어 5겁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두고 중생을 제도할 준비를 완료하여 아미타불이 된 것이다.

‘연대’ 민명 심민섭

‘생명나눔’ 법장스님
후임 출무원장

‘마음나눔’ 합의추대분위기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인명**

■ 주요수룩내용 ■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처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뀌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인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재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견어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 책속 부록 ■
▶ 생일로 알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꿈 해몽 비법 ▶ 띠로 보는 궁합 ▶ 달로 보는 궁합 ▶ 시(時)로 보는 궁합 ▶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 삼재법

서울·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 www.indeenet.co.kr

전 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정동(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속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리점 및 속뜸기 체험방 모집!
대박받는 틈새업종

하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속뜸을 할 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정적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속의 원적외선 유효 성분은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속뜸을 뜸 수 있다.

■ 제품의 특징
● 좌측기 내부에 온열판 정적으로 속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가 증대됨.
● 인체의 정축되는 부위가 심리온 재질로 되어 있어 끈은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정적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측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뜸 수 있다.

■ 제품의 특징
●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속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정적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의료용구로 허기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대우인증 (Korea Trade Mark)
ISO 9001:2000
의료용구 제조등록번호: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허가: 제 1682호
의료용구 안전인증번호: 007019-3001
의료산업등록: 제 0339842호
식품산업등록: 제 0318970호
식품산업등록: 제 0282990호
의정등록번호: 제 0344295호
의사등록번호: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1호
ISO 9001 인증번호: 제 017293호

대리점 및 속뜸기 체험방 모집 문의전화
오행속뜸기, 음양속뜸기, 오행좌측기 등을 팔지방 및 사우나, 피아미용실, 한의원 등에 특점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02)521-4453

www.moxa4u.com 오행속뜸·좌측기·음양속뜸기 제품문의 02)521-6353~4